



진격의 '쏘울 부스터'

기아차 광주공장 전량 수출
 지난달 미국 판매 8592대
 출시 한달만에 기아차 美 판매 1위
 전년비 29.5%·전달비 20.9% 상승

기아차 광주공장의 '글로벌 대표 아이콘' '쏘울 부스터'가 미국 시장 돌풍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4일 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 미국법인이 지난 2월 한 달간 미국시장에서 판매한 4만3406대 중 쏘울 부스터가 8592대로 가장 많이 팔렸다. 판매량 2위에 오른 쏘렌토(7386대)보다 1000대 이상 많이 팔렸다.
 쏘울 부스터

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판매량이 무려 29.5%나 늘면서 미국법인 판매 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 쏘울 부스터는 전달에 비해서도 20.9%나 판매량이 증가했다.
 북미 올해의 유틸리티차로 뽑히며 일렉트릭 모델을 포함해 5000대 넘게 팔린 코나보다도 판매량이 많았다는 점에서 지난1월 출시된 이후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 입소문이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쏘울 가격은 1만7490달러(1965만 원)부터 시작해 경제성이 높아 다양한 고객층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공장이 전량 수출하는 쏘울의 경우 지난 2008년 출시 이후 지난해까지 글로벌 시장에서만 168만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링카다.
 지난해도 전체 생산량(15만6716대)의 98.3%(15만4134대)가 수출된 대표적 '수출 효과 차종'이다.
 특히 미국에서의 인기는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수출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59.6%인 9만3558대에 달했을 정도다. 신형 쏘울 부스터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아차 안팎에서는 1월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판매량 1위에 오른데다, SUV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트렌드 등을 감안해 예정 쏘울의 '성공 신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되고 있다.

신형 쏘울 부스터가 광주에서 전량 만들어지는 만큼 생산이 늘면 기아차 광주공장 1차 협력업체(50여곳)를 비롯, 이들과 거래하는 수백개 협력업체의 물량·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경제에 기대감도 크다.
 한편, 현대차 미국법인(HMA)에 따르면 현대차는 2월 한 달간 미국 시장에서 4만5612대를 판매, 작년 동기보다 2.0% 더 팔았다. SUV(스포츠퉈리티차) 판매 비중이 전체의 55%를 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기차 기술 대격돌...유럽시장 신차 미리 본다

2019 제네바 모터쇼

'2019 제네바 모터쇼'는 200여개 업체에서 신차 150종을 포함, 900여종의 차량을 선보이는 만큼 올해 유럽 시장을 공략할 신차를 미리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친환경차, 그중에서도 전기차만 16종(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의 신모델이 새롭게 공개될 예정이라 관심을 모은다.
 국내에선 기아차가 유럽법인이 제작한 새로운 전기 콘셉트카를 모델로 참가한다. 티저 이미지가 공개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아차의 전기 콘셉트카는 차세대 전기차 모델의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다목적차량(MPV) 전기 콘셉트카인 '콘셉트 EQV'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이 차는 벤츠의 대표 중형 밴 V-클래스의 전기차 버전으로, 2021년 양산될 전망이다.
 벤츠는 또 고성능 경주용 전기차인 '포뮬러 E 쇼카'도 선보인다.
 이 차는 2019-2020 시즌을 시작으로 국제자동차연맹

신차 150종 등 900여종 선보여
 전기차 16종...고성능 슈퍼카 볼커리
 기아, 유럽법인 제작 콘셉트카 참가
 벤츠 '콘셉트 EQV' 세계 최초 공개

(FIA)이 개최하는 전기차 포뮬러 경주대회 'ABB FIA 포뮬러 E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벤츠 EQ 포뮬러 E 팀이 향후 경기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벤츠는 여기에서 '스마트 포이즈+(smart forease+)'라는 쇼카도 선보인다. 스마트 브랜드의 진보적인 디자인과 더불어 통합 모빌리티 패키지 '레디 투(ready to)'의 최신 개발 서비스를 가장 잘 보여주는 쇼카로, '레디 투'는 도심에서의 삶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 줄 차량 공유 서비스다.
 시트로엥은 친환경적인 도심형 모빌리티로 브랜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경형 해치백 전기 콘셉트카인 '에이미

원'(Ami One)을 공개한다.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2인승 초소형 전기차로, QR 코드 인식을 통해 차량 접속이 가능하고 계기반 위에 스마트폰을 꽂으면 차량이 사용자 및 주행 정보를 인식해 스스로 작동한다. 최고 속도 45km/h, 1회 충전시 주행 가능 거리 100km, 완전 충전까지 2시간이 소요된다.
 프랑스 푸조는 7년 만에 완전전경(플러그인)된 뉴 푸조 208의 전기차 모델인 뉴 푸조 e-208을 선보인다.
 뉴 푸조 e-208은 50k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최고 출력 100kW, 최대 토크 260Nm의 성능을 발휘한다. 또 1회 완충 시 WLTP 기준으로 최대 34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이외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차량인 튠 버기를 재해석한 2인승 소형 해치백 순수 전기 콘셉트카 '1.D 버기'를 공개한다. 아우디는 e-트론 라인업의 세 번째 모델인 Q4 e-트론 콘셉트카와 Q5의 PHEV 부분변경(페이스트리프트) 모델을 내놓는다.
 한편, 모터쇼는 오는 5일(현지시각) 스위스제네바 팔레스트포 전시장에서 17일까지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아 전기차 콘셉트카 티저 이미지



벤츠 '스마트 포이즈'



뉴 푸조 e208



시트로엥 에이미 콘셉트카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째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KCPBA 2016 한국소비자보호원 최우수제품
 2011 프리엄보존대상
 2011 프리엄보존대상
 2011 프리엄보존대상
 2011 프리엄보존대상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도면역속옷 사용
 해양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아미노산,
 원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